

청년·전문가와 함께 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

- 28일부터 청년 대상 사전신청 접수... 건축문화에 대한 소통·공감의 장 열어

- 국민의 삶과 도시경관에 중요한 요소인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축문화에 대한 공감·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 프로그램(이하 현장 답사 프로그램)’ 사전신청이 6월 28일부터 시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7월 26일 첫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 * 건축에 관심있는 만 19세~39세 누구나 신청 가능
 - 참가를 위해서는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7월 12일 오후 6시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에서 사전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 * (누리집) www.molit.go.kr
 - 신청 동기 및 선정기준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7월 19일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답사 현장은 대한민국 국토대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등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한 우수 건축물*이 있는 곳이다.
 - * 청운문학도서관, 서울공예박물관,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 강감찬 도시농업센터 등
- 사전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계획이며, 신청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현장을 결정한다. 코스는 2~3시간의 도보 코스로 구성한다.
- 현장 답사 프로그램에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우수 건축물을 살펴보고 건축물의 의미와 건축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우리 건축의 가치와 의미에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건축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토대로 우수 건축물과 경관 현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답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올 가을 예정인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등 건축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추가로 실시한다.
- 현장 답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부서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책임자	과 장	소성환 (044-201-3775)
		담당자	사무관	권지희 (044-201-3778)
			주무관	한재우 (044-201-3782)
		배너제작	인 턴	진유나 (044-201-3619)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답사 후보 현장 개요



청운문학도서관(서울 종로구 지하문로36길 40)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 기와 3천여 장을 재사용한 문학 서적 위주로 운영되는 한옥 공공도서관
*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대상



청와대(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하며 개방된 국민 화합과 소통을 상징하는 공간
* 2022 대한민국 국토대전 대통령상



서울공예박물관(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4)

과거 풍문여고 건물을 최대한 보존하여 리모델링한 국내 최대 공예박물관
*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토교통부장관상
*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가회동 성당(서울 종로구 북촌로 57)

성당 진입부 휴게공간이 한옥으로 조성된 도심 속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
*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한옥상
*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서울 종로구 북촌로 134-3)

공원 내 매점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작은 도서관으로 자연과 어울리는 소박하고도 따뜻한 공간
* 뉴욕타임즈 소개(End the Innovation Obsession)



양천공원 책쉼터(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11)

도심 속 공원과 어울리는 거실 같은 분위기의 도서관
*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강감찬 도시농업센터(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96)

다양한 체험을 통해 도시 농업의 필요성을 공유하도록 기획된 공간
* 202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